

집단 이주 방법에 의한 농촌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문제

지도교수 : 청주대학건축과 최 효 승
마을명 : 충북 청원군 북이면 외평리

요즈음 농촌주택 개량문제가 많이 대두 되고 있습니다. 나쁘게는 수해상습지역이나 좋게는 새도시 건설에 따른 농촌 기존 주택의 집단이주 문제가 보다 많이 대두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식량증산면에서도 평야지에 산재되어 있는 주택들은 개조를 겸해서 집단으로 경사지에 필연적으로 이주되어야 할 문제라 하겠습니다.

요즈음 내무부에서 이런 점에 중점을 두고 군이나 면 단위의 탈단 행정기관을 통하여 교육, 계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단주택의 개선이 아니고 평야 구조 개선이라는 것은 그 내용도 산재하여 실질적으로는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통한 간단한 교육 정도로 해결해 나가기에는 힘들 것으로 생각합니다.

얼마전에 청주 근교에 공공시설의 건설로 충북 청원군 북이면 외평리의 마을 시설을 집단이주한바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본인이 참여하였던바 이 자리에서는 계획수립과정에 중점을 두고 기술지원의 성과보다는 지도하는 도중 대두되었던 문제점을 슬라이드를 통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외평리 마을은 최영장군의 영정을 모시고 있는 철원 최씨가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며 총호수는 230호였습니다. 공공시설 관계로 그중에서 180여호가 이주하는데 50여호는 타지로 이사를 가고 126호가 공동 출자하여 1만6천여평의 경사지(구릉지)에 정지작업을 하려는데 이 마을과 기술결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지가 양쪽으로 계곡 둘을 끼고 있어 배수 문제등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술지원은 기초조사와 분석, 계획안 작성, 시공지도가 있겠으나 아직 주택 본체의 공사가 70% 정도 밖에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결론은 내릴 수 없겠습니다. 우선 지도 내용으로는 기초조사로서 지형 측량은 군 당국에 의뢰하여 지형측량도와 항공사진으로 자연지세등 여러가지를 분석했고 그 다음 인적 조건으로서 그곳에 이주해 살게될 사람의 생활내용을 파악 했습니다. 흔히들 이런 점을 등한시 하게되면 농민들이 들어가 살기 위한 집이 아니라 전시를 위한 집이 되는 현상을 종종 보아 왔기 때문에 저는 생활내용 조사 자료를 작성해서 상세한 조사를 하였습니다. 농기구등을 보관 사용할 수 있는 부속사의 크기를 결정 한다는가 방의 크기, 수 등을 계획안에 많이 반영시켰습니다.

지금 이주 하려는 지역은 청주에서 약 7km 떨어진 그린벨트 지역에 위치하는 곳으로 집단이주 허가를 받아서 착수했는데 제일 먼저 문제가 되는 것이 주택의 규모를 얼마로 하느냐가 마을이주 계획에서 선행되어야 할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흔히 말하기를 농촌의 적정 택지는 100~120평이라고 하지만 100~120평으로 한다는 것은 주택개조라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농토의 가경지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큰 효과가 없을 줄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며 주택을 사용하는데 불편이 없는 최소면적으로 하고 어

땡게 가경지를 좀더 많이 확보하느냐가 농촌주택 이주 시 가장 중요한 문제라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분들이 구입 해 놓은 면적을 분석 해본 결과 80평이 평균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농촌주택 개량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택(건물)자체에 대한 어떤 측면형이라든가 외관에는 신경을 많이 썼지만 배치면에서는 그렇게 많은 분석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농촌주택과 도시주택이 다른 점이라면 생산작업이 담 안에서 행하여지기 때문에 대개는 바깥마당과 안채가 구분이 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개량주택에 정원결 작업장 그러니까 울담 안에 작업장을 접하게 되면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왔던 바깥마당과 안마당이 있을 때보다 오히려 퇴보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토지이용의 극대화를 위해서는 공동장업장 등으로해서 4호 단위라든가 또는 그이상이므로해서 공동작업장을 이용하면 전에는 100~120명이 필요했으나 80명 정도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단위를 4호 단위로 하는 것이 단위 면적 이용을 늘릴 수 있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냐고 하였더니 대부분 반대를 하였습니다. 저는 여기에 해결 방법으로 작업장을 각 집에 붙여 주되 경사지이기 때문에 도로 구성을 자연능선을 따라하면 도로 구성을 하는데 공사비등을 줄일수 있고 획지 자체가 부정형이어서 손실이 많고 또 구릉지라 굴곡이 많아서 부르도자로 매립 지역의 토층이 3자 이내 인 것은 깎아내도록 하였습니다.

이 분들이 처음 생각에 양쪽으로 골짜기가 되는 곳을 구입한 것은 양쪽을 매몰하고 바둑판처럼 택지를 조성하면 100~120평 정도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매몰한 땅에 집을 지으면 1년이 못가서 집에 균열이 생기어 못쓰게 된다는 것을 슬라이드 등을 통하여 설득을 하고 토지이용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단조로운 감이 있으나 7자형 도로망 구성을 택하였으며 마을 안길의 주간선은 6m 나머지 길은 4m 길로 하였습니다. 또한 경사지면서 7자형 도로망을 하는 대신 경사가 떨어지는 곳을 바깥마당으로 했고 능선에서 부르도자로 밀어 평지화 한 곳은

두개의 작업장을 마주 보게해서 하나씩 갖고 있을 때 보다 시간적으로 서로 엇갈려 씬으로 좀더 넓게 쓸수 있는 효과를 노렸습니다.

북향 경사면이 되는 곳은 택지를 90평 정도로 해서 바깥의 터가 낮은 곳의 건물 뒤를 이용해서 구분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의도는 주택 부분을 담을 하더라도 바깥마당은 담을 하지 말고 공간을 두자고 했는데 설득이 잘 안되어 상록수 울담을 만드는 것으로 절충이 되었습니다. 또한 북향면에는 대지를 좀더 오게하고 양쪽으로 길을 만들었으며 남쪽에 건물이 높은데 위치하기 때문에 가운데 길을 하나 더두어 인동 거리를 조금이라도 더 확보해 주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전체 배치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이 마을에는 교회가 둘, 최영장군의 사당, 정미소, 마을회관 등 기존 공공시설이 있었는데 공공시설에 대하여 의논을 하면 시설에 대한 욕심은 많으나 막상 대지할애에 대하여는 인색하였습니다. 그나마 얻어낸 것이 마을 진입로 부근에 소운동장겸 광장으로 쓰기로 하였고 적으나마 각 주택 단위로 27명 정도의 작업장을 3곳에 두어 소운동장을 포함하면 5곳의 공동 작업장을 두었습니다. 어린이 놀이터도 몇개소 두고 싶었지만 면적 관계상 마을 중앙부에 1개소를 두었으며 부락 번두리에 축사와 공동 퇴비장을 설치하되 바람이 부는 방향을 고려해서 주택지를 거쳐서 바람이 불어오는 곳에 설치함으로 악취가 주택으로 번지지 않게 하였습니다.

이렇게하여 주택 배치 계획을 끝낸후 택지 분할 작업을 먼저 시켰고 다음에 공동작업으로 경지 작업을 하도록 하였는데 기존 마을에서의 보상관계등이 약 1년 정도 걸려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주민들이 모두 지쳐서 자자 나누어주면 자기들이 하겠다고 하여 좋지 않은 결과가 되었습니다. 예를들어 경사지이기 때문에 주택지와 도로를 함께 경지 작업을 해야 배수관계등이 제대로 되는데 도로 부분만 자체적으로 성토하는 것과 절토하는 것을 함께 했기 때문에 길보다 낮은 주택도 생기고해서 도로를 다시 파헤치는 경우도 겪었습니다. 또 비농가 11호가 있는데 이

들의 획지 규모를 60평으로 하여 마을어귀의 조금 높은 곳에 두기로하고 각호가 들어갈 장소를 추천하기로 하였습니다. 제가 그곳에 상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천하는 자리에는 참석을 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탁 입구라 그랬는지 아니면 비농가에게 할당할 자리가 좋아 그랬는지 대농가와 비농가가 함께 참여하여 추천을 함으로써 대농가와 비농가가 엇갈려 당첨이 되었습니다. 후일 터를 바꾸도록 권유한바 웃돈을 운운하는 사태까지 발생하였습니다.

마을의 주택 평면형을 선택하는데도 많은 애로 점이 있었습니다. 76년부터 내무부에서 권장하고 있는 조립식 구조 주택이 주민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있어 이것에 약간의 변형을 주어 ㄴ자형, 一자형, ㄷ자형 등 6개형의 평면도를 제시하고 주민들이 직접 선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가족수에 따라 건평을 규정하는 데는 많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주택 구조의 합리화를 기하고 공사비를 되도록 절감시키는 것을 원칙으로하여 ㄴ자형 18평의 도면으로 20평을 짓는 사람에게는 18평의 도면에 가로, 세로의 변형을 도표로 만들어서 획지의 모양에 따라 원하는 형중 몇번 모델로 지으라는 식으로 주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시켰습니다. 또 모델 케이스의 단면도와 상세도까지 갖추어 주고 필요한 분들은 복사하여 쓰도록 하였는데 경비 관계인지 단면도만 복사하여 사용하여 건축업자 임의로 지어지는 결과가 되는 문제가 발생되었습니다.

시간 관계상 담장이라든가 공공시설등 상세한 것은 생략하기로하고 결론적으로 건의사항 또는 문제 제기를 말씀드리고 끝맺겠습니다.

앞으로 단위주택이라는 것은 먼저 말씀드린 내무부에서 권하는 조립식 구조주택으로 지붕틀이라든지 마루틀 이런 것을 적절하게 보완하면

이주를 할때 기존 주택에서 사용하던 자재를 재사용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물자 절약 면에서도 좋겠습니다.

또한 단위 건물이 아닌 마을 계획적인 측면에서는 군이나 어떤 새마을 기관의 교육만 가지고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아 전문적인 기술지원의 뒷받침으로 진행시켜 나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웃집에서 타일을 붙이니까 모두 타일을 붙여 달라고 하는데 제가 붙이는 타일을 잘못붙이면 목욕탕과 같은 느낌이 들어 주민을 설득하였습니다만 실제로 돈과 관련이 있는 청부업자의 말만 듣고 돈이 많이 들면 좋은 집인것 처럼 착각하는 경향이 있어 이런 점에서는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또한 굴뚝도 나중에 유지관리면에서 생각하면 처마와 독립적으로 세워야 하는데 굴뚝쪽 벽의 벽돌을 공용한다는 면에서 청부업자가 붙여 지으니까 모두 그렇게 되어 버리는데 이러한 것은 시범 또는 시공 지도로서 시정이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새마을사업 초기에 환경개선이라고 하여 기존 무질서한 마을에 부록으로 담장을 만들고 나무를 심고 지붕을 스텝트 또는 기와로 바꾼후 원색으로 도장을 하라고 권장하였는데 도장을 얹으면 눈에 안뜨일것이 도장을 하고 보니까 초라한 모습이 부각되는 현상이 생겼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좋은마을 즉 외부에서 보았을때 좋게 보이려던 집안에 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숲속에 지붕이 있는 그런 마을이 바람직 한 마을이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을에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담을 안하도록 권장하였는데 절충이 잘 안되어 자기 경계선에서 30cm 후퇴하여 담을하고 싶으면하되 사철나무 종류의 울담을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수 기술 지도하여

농촌 취락 구조 개선